



Hong Soon Mi Modern Dancenication [REQUIEM WITH FLOWER]

04' 홍순미
모던댄스니케이션

꽃굿

土雨花

Mud Rain Flower

꽃
굿
시
리
즈
를
마
치
며

2004.10. 11(월) p.m.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후원_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부산현대무용단, 바다(BADA)연구회

이렇게 접어도 되는 걸까요,
가여운 영혼들이 여전히 손짓할텐데
애써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겁나지 않다고 말해도 될까요,
가슴에 들은 회한이 비수가 되어 파고들텐데
태연한 척 웃어도 되는 걸까요

괜찮으리라 말해도 될까요
생채기는 아물지 않은 채 덧나기만 할텐데
더 이상 아프지 않을꺼라 자신 있게 말해도 될까요



참으로 긴 세월이었지만 돌아보니 잠깐인 것 같습니다.
소녀는 스스로 이끌리듯 춤의 강에 발목을 적시우고
땀과 눈물로 자란 작은 춤의 키에 기뻐하고
저만치 앞서가는 스승의 춤 그림자를 밟으며
영육에 질게 각인되는
춤꾼이라는 명함을 소중히 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한번 두 번 쌓인 꽃꽂이 어느덧 열바퀴를 돌고나서야
몸은 무엇이며 또 마음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도 못내 떨치지 못한 그 무언가 때문에
마지막 꽃꽂이를 치르려 합니다.

몸에서 자유로워지려 춤을 추었고
이제 춤에서 자유로워지려 몸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언젠가 몸도 춤도 자유로워지는 날
소녀는 비로소 마음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려 합니다.

내 눈물방울에 맺힌 꽃잎들을...

꽃
꽂
시
리
즈
를

마
치
며

돌아간다. 처음 눈뜬 그곳으로.
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천천히 돌아간다.
가 속삭인다.

土

Mud

길 편히 덮어주겠으니 그만 내게 안겨 편히 잠들라 한다.
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본다.
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의 안식처에 조용히 씻김비가 내리려 한다.

雨

Rain

너로 인해 고단한 육신을 얻었음에.
너로 인해 슬픈 영혼을 얻었음에.
되뇌인다.
이제 고단한 육신과 슬픈 영혼에서 널 지우려 하니.
그대 몸이 말라 대지를 적시리니.
그대 영혼이 잠들어 세상을 깨우리니.
씻김비 흐른 자리에 붉디붉은 꽃잎 하나 피려 한다.

고단한 육신과 슬픈 영혼이 잠든 그곳에
씻김비가 내립니다.

고단함과 슬픔이 씻기어진 그곳에
붉디붉은 꽃잎들이 하나 둘 피어납니다.

그들을 흠뻑려 꽃갯을 지냅니다.

제발 마지막이길 바라며 사방에 흠뻑립니다.

고단한 육신에, 슬픈 영혼에
내 마지막 꽃갯을 바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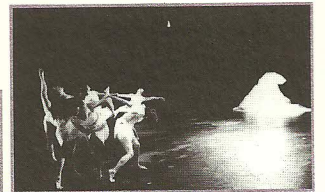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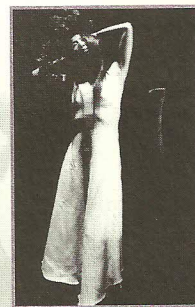
土雨花

다시 널 볼 수 있을까.
다시 널 느낄 수 있을까.
비록 흠속에 잠들어.
비록 비속에 씻기어도.
흘날린다.

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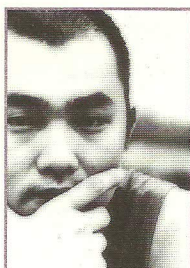
Flower

고단한 육신을 덮고 덮도록 흘날린다.
그래도 남거들랑 슬픈 영혼마저 덮도록 흘날리려무나.



이승대

98년 부산무용콩쿨 '대상' 수상
00년 KADF 국제장학생
02년 부산아시아게임개막식 보조안무
현, 대구시립무용단 차석



박종수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재학
02년 제2회 발레컨템포러리콩쿨 '대상' 수상
현, 대구시립무용단 단원



CAST



육상현



안소영



정은주



권양현



박연희



김소영



박주영

안무/연출 홍순미 | 출연 이승대, 박종수, 육상현, 안소영, 정은주, 권양현, 박연희, 김소영, 박주영, 홍순미

대본/기획 김재우 | 무대미술 이상현 | 의상 김영곤 | 사진 이선화 | 음악편집 J.H tec | 조명 이우희 | 무대감독 고운덕 | 음향 이범호

